

썬피드, 캐쉬 골드펠렛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



최근 낙농가에서 바이패스 단백질의 이용성을 10%이상 증가시켜 주어 비트펄프, 면실 대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료 제품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제품은 썬피드(경기 김포 통진읍 소재)의 주력 생산품인 캐쉬골드펠렛으로 캐슈 나무 열매의 내피를 가공해 만들어졌다.

술안주인 캐슈넛(Cashew Nut)으로 알려진 캐슈 열매의 내피가 어떻게 훌륭한 단미사료로 변신하는지 썬피드 이성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국내 최초 사료 원료화 성공

이성종 대표는 캐슈넛에 관한 다양한 논문과 자료를 검토한 후 3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캐슈나무 열매의 내피를 보조사료로 가공해 국내에 공급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원물을 가루로 생산공급하다가 펠릿으로 가공해 국내에 들어왔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과거 현지에서 생산할 때는 면실에 비해 제품의 안정성과 균일함이 부족했습니다. 캐쉬골드는 탄닌(Tannin)이라는 성분 때문에 떫은 맛이 났고, 원료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져 농가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기호성이 떨어진다거나 독신이 많이 나올 때도 있었고, 평소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다가 겨울에는 수급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했죠.”

두산생물자원 임희석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성종 대표

이런 문제점에도 이성종 대표는 캐쉬골드 펠릿이 배합사료, 비트, 면실 등 모든 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과 탄닌이라는 성분으로 바이패스 단백질 증가로 번식향상과 연변 감소, 분변량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국내 농가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얻어낸 결과를 토대로 하나하나 사례들을 연구하고 개발했지만 한계를 느끼다가 1년 전 운명적으로 두산 생물자원 임희석 박사를 만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지금의 안정적인 제품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안정적·체계적인 생산라인 통해 최고품질 사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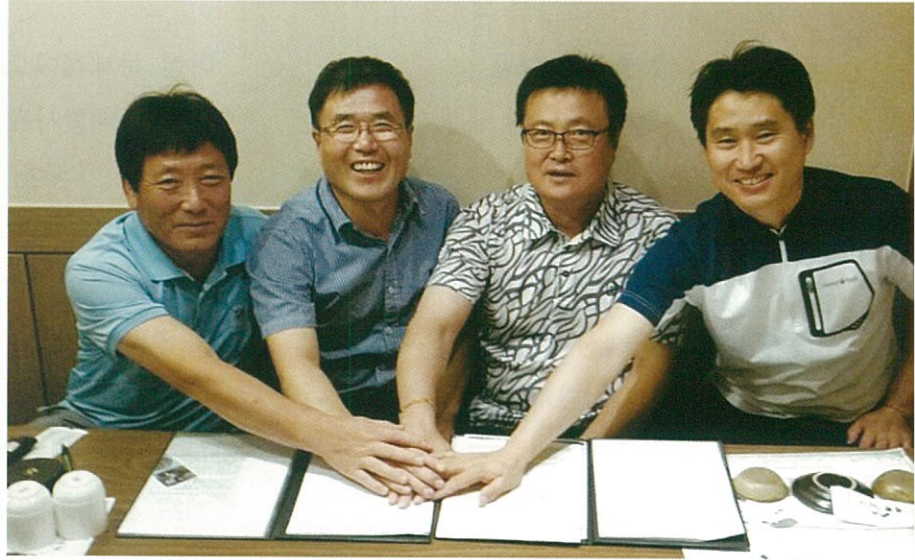
캐쉬골드펠릿은 2013년부터 해썬(HACCP) 인증을 받은 국내 굴지의 사료 가공회사인 두산생물자원(백두사료)에서 엄선된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어 기존에 제기됐던 안정성이나



두산생물자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캐쉬골드펠릿



지난 8월 2일 경기도 이천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박영제 감사, 유승주 이천시연합 축산계 회장, 이진선 총무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



균일성과 수급불균형 문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 탄닌은 쓴맛을 내는데 캐쉬골드는 이 문제로 1년여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떫은맛은 없애는 동시에 기호성을 살리는 제품으로 진화됐다.

또한 국내 유명한 사료 생산 회사에서 박사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과학적으로 단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캐쉬골드펠렛의 큰 강점이라고.

임희석 박사는 “캐슈 열매의 내피는 비트보다 가격대비 에너지가 높은 편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 목장의 생산성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농가의 반응을 모니터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취합한 결과 단미사료의 장점들을 다 갖추게 되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농가 수익증대 유도

베트남에서 직접 원료 수급과 사료 판매를 도맡아 하고 있는 이성종 대표는 과거 20여 년 동안 목장을 운영해오다 16년 전부터 사료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목장을 하던 97년 IMF 시절 젓소에게 급여할 사료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한 사료업체의 도움을 받은 것이 인연이 돼 지금까지 사료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일 1,600kg의 원유를 생산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의 목장문장을 운영하면서 목장경영을 위해서는 사료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소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목장운영당시 배합비에 맞춰 자가 TMR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굴지의 사료 가공회사인 두산생물자원(백두사료)에서 사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터득하여, 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낙농컨설팅팀과 함께 목장에 맞는 사료급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그런 덕분에 캐쉬골드펠렛의 효과를 본 목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기도 파주의 오투기목장 김영규 대표는 “썬피드의 배합비 컨설팅에 따라 비트를 대체해 캐쉬골드펠렛을 급여하면서 면실 양을 줄일 수 있어 좋았다”며 “목장에서 악취가 저감되고 발굽질병 발생률이 낮아지면서 유량, 유단백율을 걱정하지 않아 좋다”는 말을 전했다.

판매장려금 통해 농가에 환원하고 싶어

캐쉬골드펠렛을 전국 250개 목장과 TMR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썬피드는 농가에 직판보다는 지역의 축산계에 판매권을 부여해 판매 수수료를 환원해 주는 모델을 꿈꾸고 있다.

이미 이천축산계와는 계약이 체결돼 축산발전이나 지역 낙우회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목표는 영양가치가 높고 안정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사양관리기술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농가

를 위해 사료급여배합비를 2~3가지로 표준화시켜 평균 기준치를 적용하기만 하면 누구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이자 ‘낙농업 종사자들의 과제’라고 말한다. 이 대표는 고능력 젖소에게는 소중한 자녀에게 식품을 공급하듯이 생산에서 제품 안전성, 그리고 공급까지 일원화 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아울러 캐쉬골드펠렛과 더불어 앞으로 더 좋은 원료를 개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

